

창세기반

교재

데이빗리 목사



제 1 장 창세기 1장-2장

1. 창세기 1장-2장 서론:

가.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 창세기 2장: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제6일째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으며 아담을 위해 여자를 만들어 아담과 하나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결혼의 시작입니다.

2. 천지 창조의 순서를 살펴봅니다(창 1:1-25).

- 1) 첫째 날:
- 2) 둘째 날:
- 3) 셋째 날:
- 4) 넷째 날:
- 5) 다섯째 날:

[창 1:4]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창 1:10]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 1:12]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 1:18]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 1:21]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 1:25]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가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 1:26]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6) 여섯째 날:

로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3.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절로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까?

4.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말 (word)’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은 이처럼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의 권세를 사용하고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 1: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 2:18]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 2:2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있습니까?

5.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습니까?(창 1:4, 10, 12, 18, 21, 25).
6. 우리에게는 두 분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한 분은 육신의 부모이고 다른 한 분은 영의 부모입니다(창 1:26-28). 나는 영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가 계심을 믿습니까? 나는 영의 아버지와 관계를 잘 맺고 있습니까?
7. 왜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창 2:18).
6.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갈빗뼈로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과 함께 하게 한 이유를 결혼의 중요성과 함께 대답해 봅시다.(창 2:21-24).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창 2:22]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창 2:23]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가 칭하리라 하니라

[창 2:24]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제2장 창세기 3장

1. 서론: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에덴동산에서 내 쫓으셨습니다. 불사불멸 상태였던 아담은 필사필멸의 상태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를 입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 원죄를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2. 뱀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창 3:1-6).

- 1) 왜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생각합니까?
- 2) 하와를 공격했던 마귀의 세가지 공격유형은 무엇입니까(창 3:6)
- 3) 하와를 공격했던 마귀의 세가지 공격은 성경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마 4:1-10, 요일 2:16).

3.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그들에게 어떠한 변화

[창 3:1]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 3:2]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창 3:3]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창 3:4]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 3: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 3: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마 4:3]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 4:5]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마 4:6]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창 3:7-24).

1) 아담과 하와는 왜 숨었습니까? 혹 당신도 숨어있지는 않습니까?

2)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 대해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4. 하나님께서 인간을 유혹하여 죄를 범하게 만든 마귀(뱀)에게 어떤 형벌을 가하셨습니까?(창 3:14-15).

5.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에게 어떤 형벌을 가하셨습니까? (창 3:16-19).

6.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는데 가죽옷이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창 3:21).

7.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동산에 쫓아 내셨을 때 무엇으로 에덴동산을 지키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에덴동산을 지키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창 3:24).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 4:9] 가로되 만일 내게 오히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요일 2: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온 것이라

[창 3:14]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창 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 3:16]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창 3:17]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 3:2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 3:24]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 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제3장 창세기 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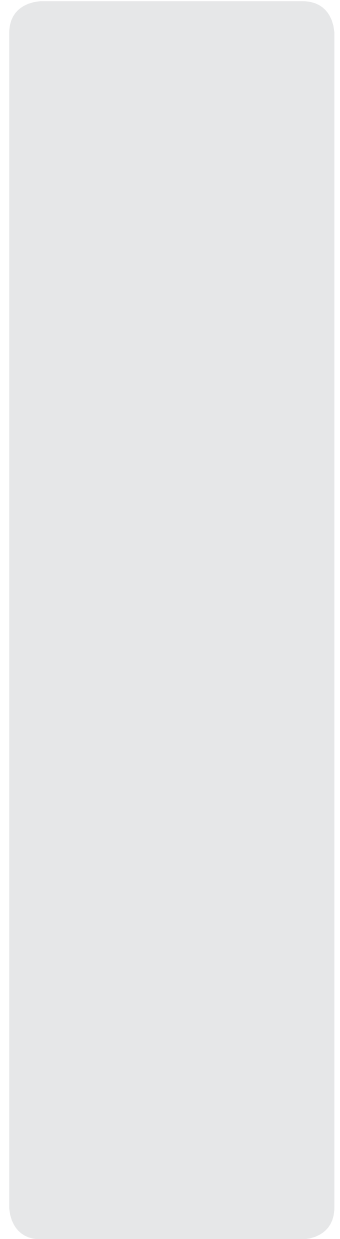
1.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제사는 기뻐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리하셨을까요? (창 4:6-7).
2.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현상은 어떠한 것일까요? (창 4:7). 혹 당신도 죄를 지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까? 만일 죄를 지어도 아무런 죄책감이 안 나타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3. 우리는 죄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4. 하나님께서 죄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 형식으로 접근하셨습니다. 또한 죄지은 가인에게도 질문 형식으로 접근하셨습니다(창 3:11-13, 창 4:9-10). 당신이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질문을 하겠습니까? 혹 당신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피해 멀리 달아나지는 않습니까? 그렇

[창 4:6]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찜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찜이뇨
[창 4:7]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엮으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 3:11]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창 3:12]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 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 3:13]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 4:9]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창 4:10]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다면 가인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비록 가인은 형제를 죽였지만 하나님 면전에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런 모습이 혹 당신의 모습과 너무 다르지는 않습니까?



제 4 장 창세기 6-9장

1. 서론: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제2의 아담으로 삼으시고 인류를 다시금 번성케 하셨습니다.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 노아시대 때 살고 있었던 인간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창 6:1-8).
3.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 노아시대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타락한 사람과 노아의 가족 중 어느 쪽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4. 노아가 당시 살았던 사람들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창 6:9).
5.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얼마동안 방주에 있었

[창 6:1]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창 6:2]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창 6:3]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일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창 6:4]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고대에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창 6:5]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 6:6]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 6:7]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창 6:8]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 6:9]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습니까?(창 7:11, 창 8:13-14). 방주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모두 몇명입니까?

[창 7:11] 노아 육백 세 되던 해
이월 곧 그 달 십칠일이라 그 날
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

창 1:6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
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
고 창 1:7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
매 그대로 되니라

물주머니



창 7:11 노아 육백 세 되던 해 이월 곧 그
달 십칠일이라 그 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창 7:12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없어진 물



6.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행한 일은 무
엇입니까? (창 8:20). 당신은 무엇을 가장
먼저 행하고 있습니까?

7.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내린 명령은
무엇입니까? (창 9:1-7). 노아에게 내려진
명령과 아담에게 내리셨던 명령을 비교해

늘의 창들이 열려

[창 8:13] 육백일년 정월 곧 그 달
일일에 지면에 물이 건한지라
노아가 방주 두껍을 제치고 본
즉 지면에 물이 건했더니
[창 8:14] 이월 이십칠일에 땅이
말랐더라

[창 8:20]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
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
니

[창 9:4]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대홍수-Deluge

궁창위의 물



복시다(창 1:27-30).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당신에게도 똑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8.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절대로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창 9:4-6). 왜 짐승을 피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레 17:11).

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창 9:5]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 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창 9:6]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레 17:11]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제 4 장 창세기 10-11장

1. 서론:

- 1) 창세기 10장: 본장은 홍수 이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실현됨을 보여줍니다.
- 2) 창세기 11장: 본장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이에 이어지는 인류의 원역사(原歷史)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의 대홍수, 민족들의 기원과 분산 사건을 다루는 창세기 전반부인 제 1-11장까지의 일련 기사의 종결 부분이다. 본장을 마지막으로 창세기 제 1 장부터 계속되었던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 초기의 장구한 역사는 막을 내립니다.

- ### 2. 창세기 10장에는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한 족속이 언급되었습니다. 모두 몇 족속일까요?

3. 니므롯은 뛰어난 사냥꾼이요 세상의 영걸로 사람들의 영광을 받았던 자였습니다(창 10:8-9). 하지만 그는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행여 사람으로부터 영광받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지요?

3. 노아의 자녀들을 통해 세상에 사람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자녀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창 10:32).

4. 왜 인간들이 바벨탑을 세웠습니까? (창 11:3-4). 혹 당신은 지금 바벨탑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5.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 11:9). 혹 당신의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계시지는 않지요?

[창 10:32]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백성이 나뉘었더라

[창 11:3] 서로 말하되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창 11:4] 또 말하되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창 11:9]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

제5장 창세기 12장

1. 서론: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이에 이어지는 인류의 원역사(原歷史)와 관련하여 창조, 타락, 노아의 대홍수, 민족들의 기원과 분산 사건을 다루는 제 1부인 제 1-11 장과 민족 분산 이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모든 민족의 축복의 도구로 삼은 이스라엘의 네 족장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사적을 기록하는 제 2부인 제 12-50장으로 나누어집니다.
2.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라고 하셨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창 12:1). ‘본토, 친척, 아비집’은 아브라함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상적인 도움의 손길을 모두 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 의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

[창 12: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을 버리고 있습니까?

3. 아브라함에게는 축복권세와 저주권세가 주어졌습니다(창 12:3). 축복권과 저주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권과 저주권이 당신에게도 해당되는 권세라고 믿습니까?

4.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이주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 12:7). 사방 천지가 이방인으로 둘러싸여 있었던 그 당시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당신은 예배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창 12: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창 12:7]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 곳에 단을 쌓고



5.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이유는 무엇 때문
입니까? (창 12:10). 혹 당신은 지금 애굽으
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6.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창 12:11-13). 아브라함
이 99세 때에 또 다시 남방으로 이사할 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두려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습니다(창 20:1-18). 혹 당신은
위협이나 위험 때문에 배우자를 속인 적이
있습니까?

[창 12:10] 그 땅에 기근이 있으
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창 12:11]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래더러 말
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
운 여인이라

[창 12:12]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
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창 12:13]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
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제 6 장 창세기 13장

1. 서론: 본장은 아브람이 본토였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했던 가나안에 도착했으나 기근을 당해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인간적인 실수를 저질렀던 사건이 기록된 전장에 이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나안에 다시 올라와 정착하게 되는 과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장은 애굽에서 인간적인 나약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택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후 아브람이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와 가나안 땅의 주역으로 부상하여 신앙의 조상으로서 보다 성숙한 삶을 살아감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2.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왔으니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 가족끼리 서로 다툼이 있어서 차라리 헤어져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창 13:5-11).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문제가 많

[창 13:5]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창 13:6]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창 13:7]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족의 목자와 롯의 가족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창 13:8]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창 13:9]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습니다. 헤어지면 안되는 것인데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 무조건 헤어지는 것을 최선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다툼과 갈등 속에서도 헤어짐이 없이 늘 함께 합니까?

2.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롯이 바라봤을 때 그곳이 마치 에덴동산처럼 보였습니다(창 13:10-11).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혹 나의 삶에도 롯과 같은 어리석은 판단과 선택이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악한 땅이지만 세상적으로는 아름다운 땅인 소돔과 고모라를 왜 구분하지 못할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여서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나는 좌하리라

[창 13:10]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데로 여호와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창 13:11]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창 13:10]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데로 여호와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창 13:11]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제7장 창세기 14장

1. 서론: 가나안 북방 왕 네 왕의 공격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함께 포로로 잡혀 가게 됨을 알고서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북방 네 왕을 무찌르고 승전고를 울리며 돌아온 아브라함이 살렘의 왕이며 제사장이었던 벨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친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벨기세덱은 장차 오실 예수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주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2.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에서 살게 되었을 때부터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급기야 북쪽 네 왕이 쳐들어 왔을 때 재물이 노략질 당하였으며 사로잡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창 14:11-12).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롯은 세상을 좇아 간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좇아 살면 롯처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롯처럼

[창 14:11]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창 14:12]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세상을 좇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3.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쳤습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히 7:1-3). 이는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려야 합니다. 나는 십일조를 바치고 있습니까?
4. 아브라함은 소돔왕에게 “네게 속한 것은 무론한 실이나 신들메라도 취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창 14:21-24). 이것은 세상과 떨어져 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소돔은 세상이었습니다. 롯은 세상을 좇아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세상과 깨끗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나는 세상과 깨끗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히 7:1]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히 7:2] 아브라함이 일체 십분의 일을 그에게 나눠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히 7:3] 아비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창 14:21]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창 14:22]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창 14:23]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무론한 실이나 신들메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창 14:24]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 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제8장 창세기 15장

1. 서론: 본장은 이미 아브람에게 주어진 바 있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언약과 후손을 땅에 티끌과 같이 창대케 하리라는 언약을 다시한번 반복하며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2. 아브람은 자식이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창 15:1-3). 혹 당신은 어떤 문제를 두고 아브람처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3. 1. 자식이 한명도 없었던 아브라함은 못별처럼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창 15:5).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2. 하나님께서 친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창 15:1] 이후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 15:2] 아브람이 가로되 주여 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창 15:3] 아브람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창 15:5]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못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것은 반드시 그 약속이 이뤄질 것임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창 15:17-21).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 세상에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박혀 죽으심으로 인해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음을 믿습니까?

[창 15:17] 해가 저서 어둡을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창 15:18]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창 15:19]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창 15:20]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창 15:21]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제9장 창세기 16-18:19

1. 서론: 본장은 전장에서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란 하나님께서 주신 햇불 언약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아브람의 결정으로 인해 일차적으로 아브람 가정 내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역사상 계속되는 이스라엘과 아랍 세력들간의 분쟁의 씨앗을 배태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 사라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자녀를 낳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녀 갖기를 원하여 몸종을 남편에게 주었습니다(창 16:1-2).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종교전쟁에 휩싸이는 문제를 낳게 된 것입니다. 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삽니까?

[창 16:1] 아브람의 아내 사라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यो 이름은 하갈이라

[창 16:2] 사라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3. 사래는 자신의 결정때문에 몸중으로부터 수욕을 당하였건만 오히려 남편때문에 이 모든 고통이 따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창 16:4-6). 사래는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전가시키지는 않습니까?
4.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시래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셨습니다(창 17:4-5, 15-16). 그 이후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한층 커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의 새로운 이름은 세상적인 이름이 아니라 영적인 이름입니다. 누구든지 영적인 이름을 갖는 사람은 이처럼 믿음이 커집니다. 나는 영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혹,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있습니까?
5.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식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창 17:9-14). 할례는 모든 언약의 대표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언약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복을 받습니다. 나는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창 16:4]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창 16:5]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창 16:6] 아브람이 사래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래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래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창 17:4]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버가 될지라

[창 17:5]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버가 되게 함이니라

[창 17:15]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래는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창 17:16]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창 17:9]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창 17:10]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6.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듣고는 웃었습니다(창 17:15-18).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마음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심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의심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창 17:11]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창 17:12]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은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무론하고 난 지 팔 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창 17:13]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창 17:14]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창 17:15]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래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창 17:16]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창 17:17] 아브라함이 엎드리어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백 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 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창 17:18]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제 10 장 창세기 18:20-19장

1. 서론: 세 천사를 부지중에 영접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패역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이에 대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드린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이 언급된 전장에 이어 본장은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이 주어지나 롯의 가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 후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받은 롯이 그 두 딸과 통침하므로써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2.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천사들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라도 찾게 되면 그들로 인해 그 땅을 멸하지 않으시겠다 하셨습니다 (창 18:32).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은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창 18:32]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심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 이까 가라사대 내가 심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3. 소돔 백성들은 천사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창 19:4-5). 오히려 천사들을 강간하려고 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어둠에 거하기 때문에 빛되신 주님을 대신하여 찾아온 천사들을 영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어둠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빛되신 주님을 영접하였습니까? 나는 빛에 거하고 있습니까?

4. 롯의 사위들은 소돔의 멸망에 대한 경고의 음성을 들었지만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말았습니다(창 19:12-14). 결국 소돔과 함께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롯의 사위들은 롯의 가족이었기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가졌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은 기회도 스스로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놓치고 말았습니다. 나는 구원의 음성을 분잡고 있습니까?

5. 천사들은 롯의 가족들에게 절대로 뒤 돌아보지 말며 들에 머물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결국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창 9:17-

[창 19:4]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무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창 19:5]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창 19:12]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창 19:13]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창 19:14]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26). 롯의 아내는 세상을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 당신은 세상을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6. 롯의 두 딸은 ‘세상이 도리’를 지키고자 아버지 롯과 동침을 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창 19:30-38). 결국 저들의 후손을 통해 암몬과 모압족속이 생겨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암몬과 모압족속은 늘 이스라엘의 걸림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리보다 세상의 도리를 지키는 사람에겐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놓여지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리보다 세상의 도리를 더 좇고 있지는 않습니까?

[창 19:30]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창 19:31]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좇아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없으니

[창 19:32]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창 19:33]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자 그 아버지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창 19:34] 이튿날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제 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창 19:35] 이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창 19:36]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창 19:37]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창 19:38]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제 11 장 창세기 21장

1. 서론: 본장을 보다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 -7절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늙어 경수까지 끊어진 사라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습니다. 8-21절에는 아브라함의 후처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회롱함으로 아브라함이 그 모자(母子)를 추방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 주셨으며 번성케 하실 것이란 약속을 주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 - 34 절은 가나안 토착 세력인 아비멜렉이 먼저 청하여 아브라함과 상호 불가침조약을 맺음으로써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2. 아브라함은 자신의 첫 아들을 매몰차게 내쫓았습니다(창 21:14). 자신의 후처에게서 난 자식들을 내 보낼 때는 재물을 줘서 내 보냈지만 하갈과 이스라멜을 내쫓을 땐 그저 며칠지나면 없어질 떡과 물 뿐이었습니다. 어

[창 21:14]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떻게 사랑한다면서 이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켜서 그렇게 행했다고 변명할까요? 아니면 믿음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학대한 것일까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학대를 하지는 않는지요?

2. 아브라함에게 내쫓긴 하갈과 이스마엘은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했습니다(창 21:15-16). 물이 없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고통을 보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창 21:15] 가족부대의 물이 다 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창 21:16]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쯤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제 12 장 창세기 22장

1. 서론:

- 1) 전반부인 1-14절은 너무나도 극적으로 전개되는 그 유명한 이삭 희생 제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죽여 제물로 바치라는 두려운 시험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놀라운 순종으로 이를 실행에 옮기는 철저한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 2) 중반부 15-19절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을 희생하는 놀라운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자녀가 번성하며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예언을 주신 사건이 기록됩니다.
- 3) 후반부 20 - 24절은 장차 언약의 아들 이삭과 결혼할 리브가의 혈통을 중간 기사식으로 삽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라고 예언된 셈의 후손임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2. 아브라함은 도저히 인간으로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창 22:1-2). 때때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이성과 판단에 맞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은 우리의 순종함을 보기 위함입니다. 나는 나의 생각과 판단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3. 아브라함은 도저히 순종하기 힘든 것을 온전히 행하였습니다(창 22:3-10).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지 않았다면 이삭은 죽임을 당하였으며 번제로 바쳐졌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으로 큰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여 이토록 큰 믿음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까?

4.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약속받았습니다(창 22:15-17). 그가 그런 축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

[창 22:1]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 하시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창 22:2]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 22:3]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창 22:4] 제삼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 지라

[창 22:5]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창 22:6]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창 22:7]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창 22:8]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 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창 22:9]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르자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창 22:10]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순종은 큰 축복이
따릅니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
씀을 순종하며 그대로 준행하고 있습니까?

[창 22:15] 여호와와 사자가 하
늘에서부터 두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창 22:16]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
하였은즉

[창 22:17] 내가 네게 큰 복을 주
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
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
을 얻으리라

제 13 장 창세기 24-26장

1. 서론:

- 1)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음을 부각시키고 그 아들 이삭의 결혼을 서두르며 마침내 결혼한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이 구속사의 주역으로 서서히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2) 25장에서는 한결을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죽음을 기록함으로써 언약의 후계자 이삭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음을 밝힙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으며 육적 장자 에서가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판 사건을 언급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선민 언약이 급속히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전개됨을 보여줍니다.
- 3) 26장에서는 이삭이 흉년을 당하여 블레셋의 도시인 그랄로 이주한 것과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라 속인 치욕스러운 사

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큰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이삭이 크게 번성하였다는 사실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함으로 그 땅을 떠난 사실 및 이삭이 놀랄만한 인내로 물이 귀한 형편 가운데서도 소중한 우물을 거듭 양보하였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삭의 또 다른 신앙 연모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2.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의 배우자를 자신의 족속 중에서 찾았습니다(창 24:3-4). 이것은 믿음을 지키려는 행동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족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신이 족속 중에서 자부를 맞이하려했던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배우자와 살고 있습니까? 자녀의 배우자를 믿음의 사람 중에서 찾고 있습니까?
3. 아브라함은 자부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도록 명했습니다. 절대로 갈대아우르로 가지말라고 했습니다(창 24:5-8). 이는 가

[창 24:3]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창 24:4]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창 24:5]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좇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다

[창 24:6]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창 24:7]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네

나안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갈대아우르는 '세상'이었습니다. 비록 가나안땅이 척박하고 힘든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4. 엘리에셀은 이삭의 결혼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임을 라반에게 확고히 했습니다(창 24:32-33).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을 결혼이라면 아예 밥도 먹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밝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계획할 때 아무런 생각이 없이 나아갑니다. 세상의 정욕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때 비로소 잘못을 깨닫곤 합니다. 나는 엘리에셀처럼 모든 일을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겠습니까?

5. 이삭은 결혼하였어도 아이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자녀갖기를 위해 간구하였습니다(창 25:21).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자녀를 갖게 해 주셨습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지니라
[창 24:8] 만일 여자가 너를 좇아 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 지니라

[창 24:32]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약대의 짐을 부리고 쉼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종자의 발 씻을 물을 주고
[창 24:33]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창 25:21]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니다. 우리가 뭔가를 얻기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 주십니다. 나는 간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얻고 있는지요?

6. 에서는 야곱의 장자로서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팔죽 한 그릇 먹으려고 장자 축복권을 우습게 여기고 말았습니다. 결국 에서의 장자 축복권은 고스란히 야곱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창 25:31-34). 나는 세상의 정욕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7. 그랄 지역 사람들은 이삭이 잘 됨을 보고 시기하였습니다. 결국 시기함으로 인해 이삭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그랄로 갔습니다(창 26:12-18).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했듯이 이삭도 그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충만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복을 받고 있습니까?

8. 이삭은 결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귀한 우

[창 25:31]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창 25:32]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창 25:33]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창 25:34] 야곱이 떡과 팔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솔히 여김이었더라

[창 26:12]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창 26:13]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창 26:14]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창 26:15]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흠으로 메웠더라

[창 26:16]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창 26:17]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창 26:18]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뚫던 우물들을 다시 뚫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물을 블레셋 사람에게 억울하게 빼앗겼지만 단 한번도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창 26:20-22).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빼앗겼던 이삭을 더 큰 복을 내리셨습니다. 나는 나를 휘방하는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가?

9.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 그랄의 델기세덱왕이 화친을 요구했습니다(창 26:26-31).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자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함이 있습니다.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지요?

10. 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습니다(창 26:34-35). 아브라함은 믿음의 족속에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았건만 이삭은 그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

불렀더라

[창 26:20]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섹이라 하였으며

[창 26:21]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고로 그 이름을 싯나라 하였으며

[창 26:22]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창 26:26]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 자라

[창 26:27]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창 26:28]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창 26:29]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창 26:30]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창 26:31]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는 하나님을 섬기는 배우자와 살고 있습니까?
나의 자녀의 배우자를 믿는 자 중에서
찾고 있습니까?

[창 26:34] 에서가 사십 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창 26:35] 그들이 이삭과 리브
가의 마음의 근심이 되었더라

제 14 장 창세기 27-36장

1. 서론: 믿음의 아버지로 부름받았던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제 2 대 족장으로 순종과 온유의 삶을 살았던 이삭에 이어 이스라엘 12지파의 직접적인 조상인 야곱의 생애가 기록된 제 27 - 36장에 걸쳐 전개됩니다.
2.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길 원했습니다(창 27:1-4).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은 그 축복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마땅히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기도를 많이 해 줘야 합니다. 그럴때 자녀가 부모의 기도를 통해 그대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자녀에게 축복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부모로부터 축복기도를 받으며 성장했습니까?
3.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축복을 받기 위해 이삭을 속였습니다(창 27:15-23). 하나님은 속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남을 속이는 것은

[창 27:1]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만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창 27:2]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창 27:3] 그런즉 네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창 27:4]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창 27:18]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창 27:19]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되 나는 아버지의 만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안 좋은 것입니다. 나는 다른사람을 속이고 있습니까?

4.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지만 에서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과 이스마엘의 후손 중에서 아내를 삼았습니다(창 28:1-9). 결혼은 인간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자가 믿음의 배우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배우자를 만났습니까? 혹, 나의 생각과 의지로 찾은 배우자는 아닙니까?

5. 야곱은 에서의 위협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했을 때 인생의 가장 힘든 때였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창 28:10-15).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6.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에 반드시 십일조를 바치겠다고 약속했습

[창 28:1]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창 28:2] 일어나 밤단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브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창 28:8] 에서가 또 본족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창 28:9]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를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옷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창 28:10]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창 28:11] 한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자더니

[창 28:12]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창 28:13]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창 28:14]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창 28:15]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니다(창 28:20-22). 나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십일조를 통해 하고 있습니까?

7. 야곱은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처럼 여겼습니다(창 29:18-20).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나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8.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수고하였지만 라반의 계략 때문에 그 7년이 헛수고처럼 여겨졌습니다(창 29:21-30). 하지만 헛수고라 여겼던 레아를 통해 그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결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수고한 것이 반드시 얻게 될 것임을 믿습니까?

9. 야곱은 라반에게 너무나 황당스런 제안을 했습니다. 짐승 중에 아롱지고 점있는 것은 자신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창 30:32-43). 그런 짐승은 돌연변이라 잘 생

[창 28:20]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창 28:21]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창 28:22]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창 29:18] 야곱이 라헬을 얻어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칠년을 봉사하리이다

[창 29:19] 라반이 가로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창 29:20]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칠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칠년을 수일 같이 여겼더라

[창 29:26]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창 29:27] 이를 위하여 칠 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그를 위하여 또 칠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창 29:28]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칠 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창 30:37]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평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창 30:38]

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흥나무의 푸른잎사귀를 이용하여 짐승들을 돌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소원대로 이뤄졌습니다. 나는 야곱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야곱과 같은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까?

10. 야곱은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야곱의 씨름은 저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창 32:24-28). 누구든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는 그의 구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간절함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11. 야곱이 압박강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에서가 무서워 뒤에 숨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가족들 앞에 섰습니다(창 33:1-3).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나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함이 있습니까?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매 그 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배니 [창 30:39] 가지 앞에서 새끼를 배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창 30:40]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창 30:41] 실한 양이 새끼 뿔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배게 하고 [창 30:42]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창 30:43]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악대와 나귀가 많았더라

[창 32:24]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창 32:25]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창 32:26]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창 32:27]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창 32:28]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창 33:1]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12. 야곱은 에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본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창 33:8-10). 야곱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에서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이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형제와 화목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 누구에게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형제와 화목함으로 하나님을 뵈옵니까?
13.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벧엘로 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환경을 안전케 하셨으니 저가 벧엘로 가서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에 목축하기 좋은 세겜땅을 찾은 것입니다(창 33:18-20).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4. 디나가 세겜 추장으로부터 좋지 않은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화를 감출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화는 그들을 살인자로 만들고야 말았습니다(창 34:7-13). 이처럼 화를 참지 못하면 그 참

에서가 사백인을 거느리고 오는 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창 33:2]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 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창 33:3]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창 33:8]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창 33:9]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창 33:10]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온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창 33:18] 야곱이 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에 이르러 성앞에 그 장막을 치고

[창 33:19] 그 장막 친 발을 세겜의 아비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 서은 일백개로 사고

[창 33:20]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창 34:7]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지못한 화로 인해 나 자신에게 더 해로운 일이 생깁니다. 나는 화를 참지 못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화를 다스리는 자입니까?

15. 야곱이 세겜을 떠날 때에 모든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상수리나무 아래 묻었습니다(창 35:1-6). 야곱은 그것들을 완전히 버려야 했지만 나중을 생각했기에 묻어 놓은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세겜과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베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세겜은 세상과도 같은 곳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온전히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세상 것을 온전히 버려야만 했습니다. 나는 온전히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까?

16. 야곱은 자식을 영적으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둘째아들과 셋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성 남자들을 모두 죽이는 잔인한 죄악을 저질렀으며 장자 르우벤은 서모 밋화와 통간하였습니다(창 35:22). 심지어 야곱의 아들들은 동생 요셉을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자식을 키우지 못할

[창 35:1]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창 35:2]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창 35:3] 우리가 일어나 베엘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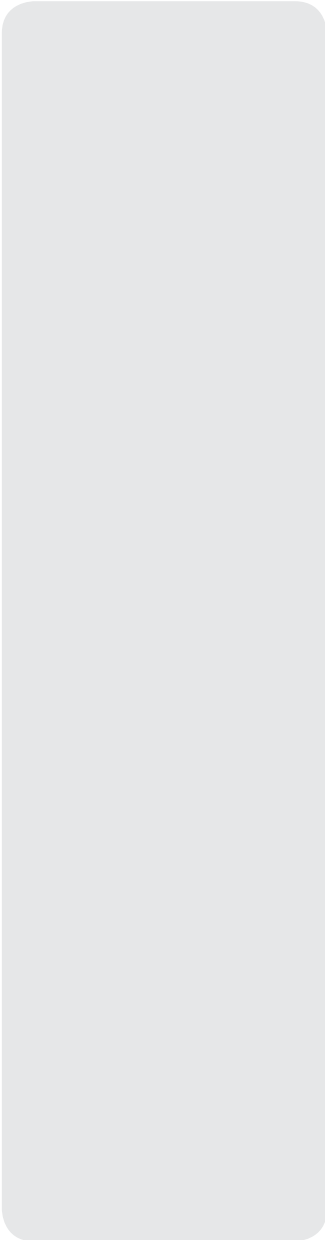
[창 35:4]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창 35:5]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시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창 35:6]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엘에 이르고

[창 35:22]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밋화와 통간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열둘이라

때 자식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자식들을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으로 잘 양육
하고 있습니까? 나의 부모는 나를 율법과 말
씀으로 양육했습니까?



제 15 장 창세기 37-50장

1. 서론: 하나님께 선택된 언약의 백성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직접적 계기를 마련한 요셉을 중심으로 중심한 역사가 기록된 부분입니다.
2. 야곱은 그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유독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혔습니다(창 37:3-4). 이러한 그의 편애는 다른 자식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 결국 이로 인해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자식 편애는 자식간의 불화를 만들고 가정의 문제를 발생케 합니다. 나는 자녀를 편애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3. 요셉의 형제들은 품지 말아야 할 살인죄를 품었습니다(창 37:18-28). 요셉의 교만이 심어서 그런 것이지만 그렇다고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진 것은 매우 큰 죄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살인의 마

[창 36:3]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옷의 누이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창 36:4] 아다는 엘리바스를 여자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창 37:18]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창 37:19] 서로 이르되 꿈 꾸는 자가 오는도다
[창 37:20]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음을 품지 말라 하십니다. 나는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지금 누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4.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은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고 있음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느꼈던 보디발은 요셉에게 가정총무를 맡겼습니다(창 39:1-6).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주위 사람으로부터 요셉처럼 인정을 받습니다. 나는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로 인해 형통함이 임한다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5. 요셉은 시무하러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보디발의 아내만 있었습니다. 요셉이 죄의 현장에서 빨리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거짓증언을 받아 감옥에 가야만 했습니다(창 39:11-20).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틈을 찾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매사에 신중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매

[창 39:1]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창 39:2]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창 39:3]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창 39:4] 요셉이 그 주인에게는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창 39:11]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창 39:12]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창 39:13]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창 39:14]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간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사에 신중하고 있습니까?

6. 요셉은 감옥에서 관원들의 꿈을 해석해 줄 때에 복직이 되면 꼭 기억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창 40:5-14). 이처럼 요셉은 자신의 은사를 활용할 때에 그것을 통해 자신의 축복받는 도구로 마음껏 활용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 은사를 자신의 은사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 은사활용을 통해 자신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사자들은 은사가 없는 사람보다 훨씬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함으로써 그것을 통해 나의 삶에 축복이 임하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7. 요셉은 가나안의 작은 부족출신입니다. 더군다나 노예로 팔려왔으며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바로왕 앞에 설 때에 너무나 담대하였습니다(창 41:14-16). 그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 앞에서 담대합니까?

[창 40:9] 술 말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창 40:10]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창 40:11]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창 40:12]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창 40:13]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말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창 40:14] 당신이 득의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창 41:14]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업을 깎고 그 옷을 갈아 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창 41:15]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풀다더라

[창 41:16]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8. 요셉의 꿈해석을 들은 바로왕과 신하들은 모두 요셉을 좋게 여겼습니다(창 41:37-43). 요셉은 그 일로 인해 총리대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였기때문에 오히려 요셉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때때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담대로 어색하게 여겨져 감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감추실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9. 요셉이 해석한대로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창 41:53-57).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해석한 것을 그대로 이뤄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년 풍년 이후에 7년 흉년을 오지않게 하실 수도 있으시며 7년 풍년을 곧바로 7년 흉년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해석대로 실행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선포하였지만 그 선포한 내용이 이뤄지기까지 믿음으로 바라보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

[창 41:37]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창 41:38]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창 41:39]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있는 자가 없도다

[창 41:40] 나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 뿐이니라

[창 41:41]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창 41:42]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시슬을 목에 걸고

[창 41:43]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얻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창 41:53] 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창 41:54]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라

[창 41:55] 애굽 온 땅이 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창 41:56]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새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더라

[창 41:57]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

시고 우리의 선포한 내용을 그대로 실행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선포된 내용이 이뤄질 것을 믿고 있습니까?

10. 요셉은 형제들을 만났을 때 매우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창 42:6-17). 악한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가족이 연합되지 못하게 하며 서로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지혜는 가족이 연합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지혜였습니다. 요셉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악한 세력보다 더 지혜롭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악한 세력의 유혹을 극복할만큼 지혜롭습니까?

11. 요셉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정도의 내쫓김을 당한 사람에게서 요셉처럼 용서하는 것을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조금도 형들을 괴롭히거나 원수갚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랑으로 품었습니다(창 43:18-34). 이처럼 형제사랑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나는 형제를

에 심함이었더라

[창 42:6]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창 42:7] 요셉이 보고 형들인줄 아나 모르는체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창 42:8]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창 42:9]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곧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창 42:15]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창 42:16]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하고

[창 42:17] 그들을 다 함께 삼일을 가두었더라

[창 43:30]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듯 하므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창 43:31]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창 43:32] 그들이 요셉에게 따

사랑하고 있습니까?

12. 요셉은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창 45:1-5). 형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가족을 구원케 하기 위해 자신을 애굽으로 오게 하셨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요셉과 같은 마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바로 유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최상으로 인도 하심을 깨닫고 있습니까?

13. 야곱은 죽은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오히려 애굽의 총리대신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창 45:25-28). 너무나 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고 인내하였기때문에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힘든 과정을 참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가운데 참고 인내하고 있습니까?

로 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하고 배식하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하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 음이었던라

[창 43:33] 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되 그 장유의 차서대로 앉히 운바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창 43:34]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오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 하였더라

[창 45:4]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창 45:5]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창 45:25]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창 45:26]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라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기뻐하더니

[창 45:27]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창 45:28] 이스라엘이 가로되 죽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14. 야곱에게 있어서 애굽으로의 이주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족 살아왔던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갈등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창 46:1-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함께 하십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15.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른손과 왼손을 서로 어긋나게 하여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주었습니다(창 48:8-20). 요셉은 이러한 야곱의 축복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놔두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하심과 사람의 생각하심은 다릅니다. 축복을 주시는 분은 축복하시는 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입니까?

[창 46:1]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회생을 드리니

[창 46:2]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창 46:3]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창 46:4]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창 48:17] 요셉이 그 아버지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창 48:18]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창 48:19]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창 48:20]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국제신학교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이런 분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 ▶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영혼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강력한 기도의 용사가 되어 기도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각종 성령의 은사(대언예언, 신유은사, 영분별, 방언통변 등)를 통해 강력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목회자의 소명이 있으나 생활책임을 위해 불가불 여가시간으로 신학교를 다니고 싶은 분!

신학생 모집요강

▶ 사역학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목회학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사역학석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대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목회학석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대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국제신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국제연합)총회의 신학교로서 강도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습니다.

** 국제신학교는 1년 6학기로 운영되고 있으며 능력에 따라 조기 졸업이 가능합니다.

** 국제신학교는 수시입학이 가능하며 한부분 사역자일 경우 학비 면제를 받습니다.

- 접수: www.wslseminary.com
- 이메일: inourlove@gmail.com

- 문의: 손에스더목사(010-3909-8844)
- 유튜브채널: www.RevivalForChurch.com